

Japan Weekly Digest

2011. 10. 1. ~ 10. 7.

☐ 금주의 이슈

- 대지진으로 일본인들의 인생관·가치관·노동관에 변화
- 일본은행, 금리 현상유지키로

☐ 일본기업전략

- 엔高 중압으로 인한 일본기업들의 한계
- 일본의 대형 전자부품메이커 중국에서 자금운용

☐ 경제산업성 동향

- 벤처기업투자 지원, 종류주 촉진으로 리스크 줄여
- 국가전략회의에서 TPP문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 보고서 리뷰

- 『일본형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평가』
미즈호경제연구소, 10월3일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대지진으로 일본인들의 인생관·가치관·노동관에 변화

- 최근 일본 아쿠사생명보험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지진 재해 이후 일본인들의 의식구조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70%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기 시작
 - 첫째, 안전·안심 등과 같은 보편적 욕구의 중요성 인식
 - 70%가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80%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불안을 느낌
 - 둘째, 직장에서의 평가나 처우에 대한 관심의 저하되고 가족 지향적
 - 고수입, 출세, 승진 등을 중시하는 비율이 감소
 - 가족과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
 - 셋째, 일의 내용과 관련, 사회 공헌이나 자기실현 등과 같은 요소를 중시
 - 일의 사회적 공헌, 사회적 의의 또는 자기실현
 - 노동관의 키워드 : 가정·가족,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 자기실현
-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
 - 이번 대지진은 어느 의미에서 일본인들로 하여금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살아나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하나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두가지 문제가 중요한데, 기업은 본연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은행, 금리 현재수준으로 유지키로

- 일본은행은 10월 7일, 금융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0~0.1%정도의 실질 제로금리로 고정. 자산 등을 매입하는 기금의 규모(현재 50조엔)도 현재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
- 유럽의 채무위기가 심각해지고 사상 최고수준의 엔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경제가 생산이나 기업의 업황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럽의 위기대응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완화책을 보류한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전략

□ 엔高 영향으로 일본기업들의 한계

- 수출채산성 악화
 - 부품의 서플라이체인이 복구된 이후 미쓰비시자동차는 増産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급격한 엔高로 수출채산성이 악화. 8대 자동차메이커들 역시 지난달부터 생산대수를 늘리고 있으나, 엔高의 역풍을 맞고 있음
 - 엘피다는 PC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메모리-DRAM 제조설비의 약 40%를 대만에 이전하기로 결정. 엔高하에서 일본내 생산 공정으로는 삼성전자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임
- 일본의 아성격인 동남아시장도 흔들려
 - 동남아시아 최초의 100만kw급 최첨단화력발전소 입찰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유력시되었으나 프랑스 알스톰로 낙찰. 미쓰비시중공업의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아성이나 다름없는데 달러·유로화의 환율 저하, 엔高로 승부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피력
- 고용, 기술 유출이 가장 큰 문제
 - 문제는 원래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들까지 엔高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있음. 일본내 생산이나 고용, 기술이 송두리째 유출되는 그야말로 「악성 해외사업 전개」가 확산될지 모른다는 것임
 - 도레이 경영연구소의 시산결과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수출이 5% 감소하는 경우 2012년까지 2년간 일본의 GNP는 4%, 고용은 200만명 감소

□ 일본의 대형 전자부품메이커 중국에서 자금운용

- 對中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대형 전자부품메이커들이 현지에서 자금효율을 높이기 위한 체제구축에 나서고 있음
 - 일본전산은 2012년 3월까지 중국에 금융자회사를 설립, 중국내 약 50개 연결회사들의 자금을 일괄 관리하고 현지에서의 자금조달도 실시
 - 무라타제작소도 중국에서 콘덴서 등을 생산하는 주요 관계회사 5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
- 양사는 일본에서는 고효율의 자금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자금수요 확대에 따라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결정. 일본전산은 수년 내에 아시아와 구미지역에도 도입을 검토, 무라타제작소도 동남아시아 등에 도입할 방침

◆ 경제산업성 동향

□ 벤처기업투자 지원, 종류주 촉진으로 리스크 줄여

- 경산성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책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종류주 발행을 촉진. 스톡옵션에 대한 우대세제규정을 국세청과 명확히 하여 종류주를 발행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는 벤처경영자들의 우려를 불식. 종류주로 투자자가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제공하여 벤처투자를 촉진
- 일본의 벤처기업에 대한 연간 투융자액에서 점하는 종류주의 비율은 약 10%. 그 중 80%는 보통주에 의한 투자로 종류주 투자가 거의 대부분인 미국과는 대조적
- 자금조달이 보통주 중심인 현상태에서는 투자자가 경영에 깊이 관여하기 어려움. 기업이 도산도 상장도 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되어 계획도산 등의 위험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주식매입조항 등 사실상 개인보증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음
- 종류주로 청산시 재산배분의 우선권 등을 가지면 투자자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어 경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음. 경산성은 경영자의 자금조달수요와 투자자의 위험경감을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 국가전략회의에서 TPP문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경제재정운영 사령탑인 국가전략회의에서 TPP(환태평양 경제연대협정) 교섭참가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표명. 노다 수상은 TPP참가문제에 대하여 11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 때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함
- 노다 수상은 지난달 21일 미일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TPP 조기 참가를 요청받았으나 민주당내 농업관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에 부딪히고 있음
- 경산성에 의하면 각국의 무역액 중 FTA체결국가의 비율은 일본이 20%미만인데 비하여 한국이 30%대 중반, 중국도 20%를 상회. 경제연대협정에 늦게 참여할 수록 기업의 경영노력만으로 흡수할 수 없는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TPP참가는 이와같은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호기라는 것임
- 미국이 참가하는 TPP는 對EU, 對중국도 함께 3대 경제연대협정의 하나로 일본이 TPP에 참가하게 되면 EU와 중국이 경쟁상 불리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과의 경제적 연대를 서두르게 되고 일본은 이를 이용한다는 전략임

◆ 보고서 리뷰

『일본형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평가』 미즈호경제연구소, 10월3일

□ 일본형 서플라이체인의 강점과 약점

- 일본의 서플라이체인은 과거의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어몬드·그물형(mesh)형으로 변하면서 일본형 서플라이체인으로 정착. 이와같은 구조변화는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품질향상·원가절감이 불가피해진 점을 들 수 있음
- 복잡화, 집약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형 서플라이체인은 높은 경쟁력과 수익성을 가진 품질향상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발휘해 왔음
- 그러나 일본형 서플라이체인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바 그것이 바로 대지진발생→ 서플라이체인의 단절로 나타남

□ 서플라이체인 강화책

- 재해발생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험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재고 축적을 늘려 공급부족의 위험을 줄임
 - 부품의 모듈화(공통화)를 통하여 유사시 다른 생산거점에서 생산하는 등 대체성을 높임
- 한편, 재고축적은 그만큼 비용을 증대시키고 부품의 공통화는 일본제조업의 강점의 하나인 소위 「스리아와세(서로 세밀하게 맞춰나간다는 뜻으로서 영어의 integrate와 비슷함. 즉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세밀한 니즈 또는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조정하는 것)」의 강점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경쟁력의 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들 대책에는 단점도 크게 뒤따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에서 제조, 재고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제조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플라이체인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급자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임. 예를 들면 공급자와의 협업으로 원류관리(1차공급자는 2차공급자를 관리하고 2차공급자는 3차공급자를 관리하는 계층별 관리방법)를 함으로써 서플라이체인이 훼손되면 애로요인 확인까지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음
 -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긴급계획(emergency plan)에 대해서도 자사에 국한하지 않고, 서플라이체인상의 여타 메이커들과 공동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면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경제산업정책의 과제와 대응』 경제산업성, 10월1일

*출처: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eic0009/011_haifu.html

- (2) 『산업공동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수출변동효과』 농협경제종합연구소, 10월1일

*출처: http://www.nkri.or.jp/PDF/2011/kinen_20_furukane.pdf

- (3) 『일본형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평가』 미즈호종합연구소, 10월3일

*출처: <http://www.mizuho-ri.co.jp/research/economics/pdf/argument/mron1109-1.pdf>

- (4) 『공동화에 관한 논의의 정리』 미즈호종합연구소, 10월3일

*출처: <http://www.mizuho-ri.co.jp/research/economics/pdf/japan-insight/NKI110930.pdf>

- (5) 『일본경제의 재설계』 일본경제연구센터, 10월4일

*출처: <http://www.jcer.or.jp/policy/p.e2011FY.html#11>

- (6) 『신방위대강과 새로운 방위력 구상』 일본외무성, 10월6일

*출처: http://www.mofa.go.jp/mofaj/press/pr/gaikou/vol5/pdfs/gaikou_vol5_22.pdf